

Hell 교시

[수능형 생활과 윤리]

성명  수험번호 1 8

1. 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갑: 어떤 사상가는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, 정치적 목적은 도덕과는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정치적 목적 또한 도덕적인 통제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봅니다. 따라서 전쟁은 도덕적 통제가 가능한 대상입니다.

을: 그렇습니다. 모든 전쟁을 옹호할 수는 없지만 분명 정의의 영역에서 어떤 전쟁은 옹호될 수 있다고 봅니다.

갑: 동의합니다.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. 전쟁은 정치적 중재나 협상 등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했으나 전혀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해야 합니다.

을: 최후라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조건이지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. 즉, 최후의 수단이라는 조건은 적합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당신과 저는 [ ㉠ ](라)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네요.

- ①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부정의하다
- ② 군비와 동맹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을 억제해야 한다
- ③ 개전 이전에 최선을 다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
- ④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
- ⑤ 세력 균형으로 실현되는 평화가 가장 이상적인 평화이다

2. 형벌 제도에 대한 갑, 을, 병 사상가들의 입장과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[3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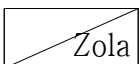
사상가	입장	공통점	
갑	우리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달게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.	(가)	(나)
을	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.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,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.		
병	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그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비록 거기서 유익한 것이 생겨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옳은 것이다.		

\* (가)는 갑과 을만의 공통점, (나)는 을과 병만의 공통점이다.

- ① 갑은 구성원의 동의에서 형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.
- ② 을은 사형 외의 형벌은 동해보복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.
- ③ 병은 갑과 달리 목적 달성 이상의 형벌은 부정의하다고 본다.
- ④ (가)에는 '형벌 제도는 정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'가 적절하다.
- ⑤ (나)에는 '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이 되어야 한다'가 적절하다.

Gooooooooo~  
멘탈 최강 인정!!!!

수능형과 짝이 되는 시발형이 있습니다.  
개념 공부할 때 활용해도 되는 문제입니다.  
다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.  
시발형이 어떤지는 지난 번에 공개된 Zola Cival mini test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

O. Zola Cival<sub>始發</sub> 모의고사 출제 목록

\* 수능형과 시발형은 문제 번호가 동일합니다.

\*\* 번호는 해당 시험의 문제 번호입니다.

\*\*\* ( )는 주제 통합형입니다.

킬러·통수 주제	18 수능	6평	9평	Zola 1회	Zola 2회	Zola 3회
1. 윤리학의 구분	1	1	1	1	1	(1)
2. 윤리 이론	5, 10, (13), 14	5, 12, 15	5, 6	4, (6), (9)	2, 18	(1)
3. 죽음관	4	11	14	(6)		
4. 가족 관계(유가)	2	(4), 8	17	2		
5. 동양 자연관				(6)		
6. 환경윤리(서양 자연관)	11, (19)	9	12	7, 15	7, 9, 12, (15)	10, 16, 17
7. 미래세대 논쟁				11	5	
8. 개인윤리·사회윤리(니부어)	(13)	13	9			(6), 12
9. 분배 정의	9	14	15	10, 13	10, 17	(2), (6), (13), 20
10. 교정 정의(형벌, 사형)	16	6	10	(9), 20		3, 5, 11
11. 인권	20				13	
12. 준법과 시민불복종	3	16	19	14, 18, 19	6	(2), 14
13. 직업관	12	3	7	3	3	
14. 다문화 태도		7				4
15.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					11	
16. 해외원조	18	17	3	17	(15)	8, (13)
17. 전쟁론과 평화론	7	18	18	5, 16	8, 16	7, 18
18. 국제관계						19
그 외 주제	4문제	4문제	7문제	2문제	4문제	2문제
주제 통합형	(13), (19)	×	×	(6), (9)	(15)	(1), (2), (6), (13)

잘보라용~~



## Zola Guide

1. 수능형과 시발형의 문제 배치 순서가 같습니다. 해설은 수능형이 간단하고 시발형이 자세합니다.
2. 시발형을 꼭 풀 필요는 없습니다. 문제와 해설을 같이 보면서 개념 공부한다는 식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입니다.
3. 해설에서 '바나나 선지' 라는 것은 항상 참 또는 거짓이거나 혹은 충분히 제시문이나 핵심 지식으로 연상(추론)가능한 선지를 의미합니다. 즉, 여러분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지를 의미합니다.
4. 출처 보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출처 보는 법	
1. 평가원	(1) 16-9평-3번 = 16학년도(15년 시행)-9월 평가원-3번 (2) 18-수능-5번 = 18학년도(17년 시행)-수능(11월)-5번
2. 교육청	(1) 16-3교-5번 = 16년 시행-3월 교육청-5번 (2) 17-10교-10번 = 17년 시행-10월 교육청-10번
3. ebs 수특/수완	(1) 17 ebs 수특 73쪽 5번 = 17년 발행(18학년도 수능 대비) ebs 수능특강 73쪽 5번 (2) 18 ebs 수완 11쪽 3번 = 18년 발행(19학년도 수능 대비) ebs 수능완성 11쪽 3번

5. 해설의 어법(?)은 반말과 높임말, 줄임말 등이 혼용됩니다. 해설자가 마음 편하게 해설해야 해설이 잘 될 것 같아서 Zola가 편한대로 할게요.

6. 수능형 목표 1컷 - 모든 수능형 문제는 1컷 40점 내외(16학년도 9평 1컷 41점)을 목표로 출제하였습니다. (현강(종로) 수강생들의 예비 테스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70% 정도가 1컷 38~42점으로 예상함)

1 ③ 독해에 가까움. 개념보다는 상식적 근거(전쟁은 극단적인 상황임.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아님. 등등)로 답 도출 가능함. 틀린 분들은 전쟁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든가 아니면 뭔가 오개념이 잡혀 있음. 알처가 전쟁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았을까? 을 제시문이 알처 얘기를 재구성한 것임.

보통 정의 전쟁론의 논거는 다음과 같음.  
[이민수, '도덕적으로 올바른 전쟁은 가능한가?', "처음읽는 윤리학"]  
오늘날 정당한 전쟁의 기준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원칙이 수용되고 있다.  
첫 번째 원칙은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...[생략]...  
두 번째 원칙은 합법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...[생략]...  
세 번째 원칙은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...[생략]...  
네 번째 원칙은 결과적 비례성이다. ...[생략]...  
**다섯 번째 원칙은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.** ...[생략]...  
여섯 번째 원칙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...[생략]...  
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. ...[생략]...

그런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정의 전쟁론자인 알처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.(교재에 현돌님의 허락을 얻어 사용한 자료가 있으니 아래 자료와 함께 확인할 것.)

[알처, "전쟁과 정의"]  
우리는 전쟁을 '최후의 수단'이라고 말한다. 전쟁은 대체로 예외 없이, 예측할 수 없고 의도되지 않은, 그리고 피할 수도 없는 참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. **사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.** 왜냐하면 '최후'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조건이지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. 최후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다른 무언가를 해보는 것, 혹은 이미 해보았던 것을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다. **'최후'라는 관념은 경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. 그러나 '전쟁이라는 개망나니의 고삐를 풀기' 전에 최선을 다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경고는 필요하다.**

2 ① Zola Guide 제시문 제시 원리가 감·병과 을이 다름. 감·병은 사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형벌과 관련된 개념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을은 사상에 대한 지식 없으면 추론 자체가 불가능하게 구성했음. 의도는 '을' 사상은 지식을 이래 저래 외워두자는 것임.  
갑: 루소(계약론+약간의 응보론도 있음. 넓게 보면 예방론도 있으나 신경쓰지 말 것), 을: 베카리아(예방론+계약론), 병: 칸트(응보론)  
③ 바나나 선지임. 누구든지 간에 '윤리 사상가'라면 목적 달성 이상의 과잉 형벌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?!  
⑤ 바나나 선지임. 모두 긍정할 선지임! 19-9평-10번 <보기> ㄷ 확인!  
Zola 중에서는 쉬운 문제임. 용기를 내어 시발형을 반드시 풀어보길 바람. 건지는 킬러 선지가 있을 거임.

